

KMI 북방물류리포트

VOL.187
SEP 3 2021

발간년월 2021년 9월 3일(통권 제187호) **주소**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발행인 김종덕 **총괄** 이주호 **감수** 최재선 **담당** 김엄지·유지원 **발행처** 한국해양수산개발원
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역구실 **TEL** +82-51-797-4776 **FAX** +82-51-797-4659



주요 동향

- 사할린에 러시아 수소 클러스터를 건설한다.
- 러 극동 조선소, 중소형 선박 수리 시설 구축
- 〈인 터 뷰〉 북극 항로는 누구의 소유인가?
- 러 NSR 프로젝트,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야
- 러 아스트라한 특별경제구역에 신항만 건설
- 러, 캄차카 연안에 LNG 환적단지 건설 추진
- 러시아·우즈베크, 물류 루트·인프라 개발 합의

주요 통계

-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·액체화물)
-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-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

주요 동향



사할린에 러시아 수소 클러스터를 건설한다.

그림.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조성 관련 협약 체결



자료: <https://www.eprussia.ru/news/base/2021/9178407.htm>

■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, ‘친환경 북극항로 조성 위해 에코폴리스 건설 추진’

- 러시아 디지털화·기술개발 분야 대통령 특별대표는 최근 사할린 수소클러스터(에코폴리스) 조성을 통해 북극항로 인프라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음^{a)}
- 에코폴리스(Ecopolis)는 북극항로 프로젝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이며,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완전 녹색 수소 활용 및 탄소 중립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

■ 올 4월에 극동북극개발부·사할린 주·로사톰은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조성 협약 체결^{c)}

- 극동북극개발부, 사할린 주정부, 로사톰이 체결한 협정은 사할린 수소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협정으로, 수소 생산단지 건설, 국내외 시장의 공급사슬 구축, 관련 기업과 수소단지 조성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
- 또한 수소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, 기술이전 및 경험 교류를 위해 사할린주립대학교에 이에 관한 센터를 설립할 예정임
- 또한 수소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루사톰 오버시즈(Rusatom Oversiz, 로사톰의 자회사)는 Air Liquide사 및 사할린 주 정부와 함께 사할린 지역 내 저탄소 수소 생산 가능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협력협정(MOU)을 체결했음^{c)}

■ 루사톰 오버시즈, 수소연료 전지 개발 위해 MH-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회사 설립 협정도

- 루사톰 오버시즈는 MH-에너지 솔루션(Transmash Holding 자회사)사(社)와 수소 연료 전지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관련 MOU도 체결했음^{b)}
- 이 협정을 통해 설립될 합작회사는 사할린 지역에서 운영될 수소 열차용 연료 보급 인프라 및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
- 또한 현재 루사톰 오버시즈는 Transmash Holding사(社)와 운송수단에 수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
- 2019년에 로사톰(Rosatom)은 러시아 철도청, Transmash Holding사(社)와 수소연료전지를 철도(열차)에 적용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,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 수소열차 7대를 활용한 철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임

그림. 사할린 수소 수출 계획



자료: <https://energypolicy.ru/tri-lovushki-rossijskoj-vodorodnoj-strategii/energoperehod/2021/15/25/>

■ 에너지넷(EnergyNet), 사할린서 연간 300만 톤의 수소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^{e)}

- 에너지넷은 2015년 러시아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2035 국가 기술 계획(2035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)에 명시된 전략 산업 중 하나임

* 이 계획에는 AeroNet(무인 항공기, 드론), NeuroNet(인공지능), EnergyNet(스마트 에너지, 장비, 소프트웨어), AutoNet(무인 자동차), MariNet(해양 스마트 시스템), HealthNet(스마트 의료), SafeNet(개인 보안), FoodNet(생산부터 소비까지 자동화된 식료품산업), FinNet(분산 재정 시스템 등) 등 러시아의 미래 전략 산업이 모두 들어 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tass.ru/obschestvo/12045251>(2021.8.30. 검색)
- b) <https://www.mk-sakhalin.ru/social/2021/08/29/zelenye-iniciativy-sakhalina-vodorod-gaz-izuchenie-klimata.html>(2021.8.30. 검색)
- c) <https://neftegaz.ru/news/partnership/677957-vodorodnyy-klaster-v-sakhalinskoy-oblasti-priobretat-ochertaniya-podpisan-ryad-pervoocherednykh-sog/>(2021.8.30. 검색)
- d) <https://www.eprussia.ru/news/base/2021/9178407.htm>(2021.8.30. 검색)
- e) http://www.ngv.ru/news/na_sakhaline_budet_sozdan_vodorodnyy_klaster/(2021.8.30. 검색)

러 극동조선소, 중소형 선박 수리시설 구축

■ 중소형 선박 수리 서비스 시스템 설치

- 극동조선소는 대형 금속구조물과 석유·가스 프로젝트용 기술장비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중소형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- 새롭게 설치되는 설비는 연해주 슈코토프스키(Shkotovsky) 지역에 소재한 ‘연해주 협동 조선소’를 기반으로 마련될 것이며,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올해 4분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
- 이와 함께 극동조선소는 해저에 설치한 장비의 외부 손상 방지를 위해 보호 구조물을 제작하고 석유·가스 분야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
■ 연간 최대 400톤 중소형 선박 30척 수리

- 극동조선소는 이 같은 생산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석유 및 가스 생산 분야 프로젝트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선박 인양, 프로펠러 종합 수리, 선박 청소, 선체 도장 및 수리 등 다양한 종합 선박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임

■ 저렴한 제품 비용 등으로 고객 만족 제공

- 극동 조선소의 고객사(조선소)는 저렴한 제품 비용 및 서비스 비용을 제공 받음으로써 조선 시장 내 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달성 가능함
- 극동·북극개발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4억 5,100만 루블이 투입되는데, 투자액의 대부분은 생산 작업장 설비와 장비, 기계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임
- 생산시설 가동을 위해 러시아 및 국제 시장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조선소 측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8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- 러시아는 이 같은 수리 조선시설 확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기업과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〈인 터 뷰〉 북극항로는 누구의 소유인가?

■ 영구 동토층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 약해질 우려 제기

- 유리 치지코프(Yuri Chirkov) 국제교통아카데미(MAkT) 북서 지부장 및 북극연구아카데미 이사회원은 영구 동토층의 해빙 현상이 가속화되면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음
- 만일 영구 동토층의 얼음이 완전히 녹거나, 녹아 있는 상태가 1년 중 6개월 미만으로 유지된다면, 러시아는 북극항로 관련 특별 항해 규정에 대한 권리를 국내외 운송기업에게 행사할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임
- 현재 북극항로 수역은 러시아 연방의 내해, 영해, 인접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괄하므로 1982년 UN협약(제2~33조, 제55~75조 등)이 적용되기 때문임. 특히 협약 제33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은 자국 영해와 인접 수역 내의 각종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통제뿐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
- 따라서 러시아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얼음으로 덮인 지역에서 선박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항해 위험 방지 및 통제를 위해 비차별적 법률을 규정하고 시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

■ 치지코프 지부장은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러시아 해운산업 문제점 지적⁹⁾

-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면, 이후 30년 동안 북극 지역 기반 시설이 70%까지 파괴될 수 있고, 2050년까지 영구 동토 지역 주민 약 360만 명(주민의 3/4)이 통신로 및 건물 파손으로 고통받을 것이라 지적함
- 현재 러시아는 북극 항만을 통해 탄화수소를 수출하고 있어 도로, 철도, 수송관 등의 현장 기반 시설이 파괴된다면, 러시아의 해상 운송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

■ 러시아 권리 상실되면 러 운송기업 타격 입으나 한국, 중국, 일본 등은 혜택 받아

- 치지코프 지부장은 러시아가 북극항로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채로 북극항로가 활성화된다면, 러시아 운송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, 한국, 중국, 일본의 도선 사업은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
- 이에 따라 러시아 채굴기업뿐 아니라 경제계 인사들은 북극 해빙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며,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는 비합리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백가희 실습생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www.rzd-partner.ru/wate-transport/interview/severnyy-morskoy-put-komu-on-budet-prinadlezhat-esli-nastupit-epokha-globalnogo-potepleniya/>(2021.09.02. 검색)

러 NSR 프로젝트,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

■ 2024년까지 목표한 NSR 연간 화물수송량 달성 어렵다는 견해 대두

- 러시아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NSR(북동항로)의 연간 화물 회전율을 8,0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지만, 현실적으로 계획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음

그림. NSR 화물 수송량



자료: https://www.dp.ru/a/2021/08/18/Marshrut_na_perspektivu

- 러시아 연방 교통부는 NSR 화물 수송량이 2014년 100만 톤 이하에서 2017년 1,070만 톤을 기록한 후, 2020년까지 연간 6,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목표에 못 미치는 3,297만 톤을 기록함
- 2019년 화물 수송량이 3,150만 톤을 기록했지만, 이는 NSR의 성공적인 개발 덕이 아닌 총 수송량에 기존보다 많은 상품이 포함되어 전체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임

■ NSR에는 완료되지 않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다수 있다는 의견도

- 크라스노야르스크(Krasnoyarsk) 영토의 디손항(Dikson)에 위치한 케이프 차이카(Cape Chaika)의 석탄 터미널은 연간 1,000만 톤의 화물 회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, 매장된 약 2억 8,000만 톤의 석탄을 육로로 터미널까지 운반할 예정임
- 세베르나야 즈베즈다(Severnaya Zvezda)는 8월 초 예니세이(Yenisei) 항구에서 가공 공장까지의 도로 건설을 완료했는데, 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항구에서 운송할 예정이지만 올해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임

- 6월 4일 야말 LNG의 4번째 라인이 완공되었으며 야말 LNG 및 Arctic LNG-2가 미래에 4,000만 톤의 화물 운송을 제공할 예정임
- 노릴스크 니켈(Norilsk Nickel)과 노바텍(Novatek)은 이미 카라해와 오비만에서 LNG 작업이 가능한 각각 약 3억 달러 규모의 3개 쇄빙선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함
- 최근 로사톰(Rosatom)과 항만 운영사 DP World는 NSR을 이용하여 북서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파일렛 컨테이너 교통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음
- 로사톰(Rosatom)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선박은 NSR을 따라 8번의 운항으로 16만 3,700톤을 운송하였으며, 아시아로의 수출이 더욱 증가하면 2030년까지 연간 약 3,000만 톤의 운송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■ 2035년까지 북극에서 대형 석유 프로젝트 추진은 불가능

- 러시아 에너지부는 석유가 이익을 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2035년까지 북극 지역에서의 능동적인 석유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, 노바텍(Novatek) 경영진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Arctic LNG-2와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발표함
-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북극의 대륙붕은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혁신적인 석유 생산 기술의 생성 및 개발을 위한 실험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며, NSR의 전체 화물량의 64.5%는 LNG와 가스 응축수이기 때문에 목표된 화물 수송량을 달성하기 어려움
- 이에 로사톰(Rosatom)은 지난 9월 목표치를 더 현실적인 목표인 6,0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했음
- NSR을 '제2의 수에즈 운하'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해외 파트너의 보장된 수요와 더 많은 쇄빙선 건조, 기후조건을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 준비가 미비한 상황임
- NSR 관련 프로젝트를 지정학적 경쟁자와의 싸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, 그 역량과 개발 속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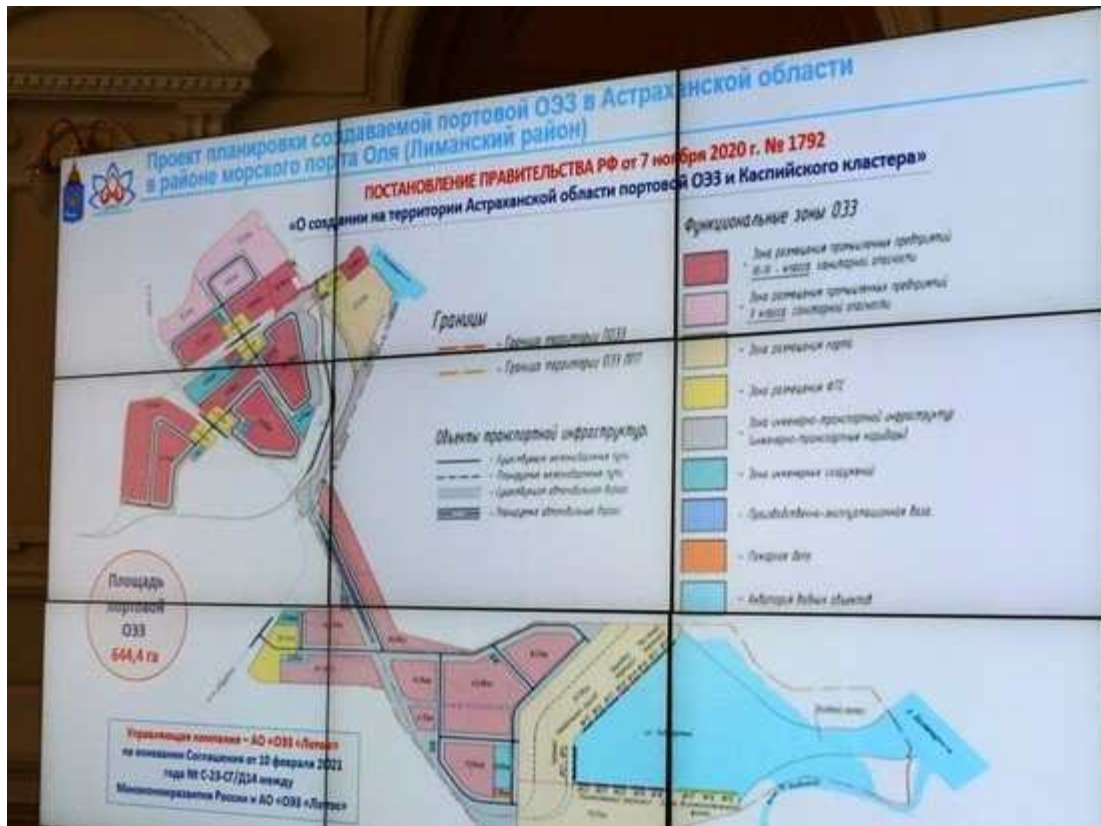
김혜영 리포터,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
(gpudud027@hufs.ac.kr)

참고자료

a) https://www.dp.ru/a/2021/08/18/Marshrut_na_perspektivu (2021.8.28. 검색)

러 아스트라한 특별경제구역에 신항만 건설

그림. 아스트라한 특별경제구역 신항만 건설 계획안



자료: https://ast.mk.ru/social/2021/08/30/v-portovoy-oez-zaregistrovali-yakornogo-rezidenta.html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

■ PLC 카스피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갖춘 항만건설에 270억 루블 이상 투자

- PLC 카스피 유한책임회사가 항만경제특구에 새로운 입주기업이 되어 아스트라한 지역 특별경제구역에 신항만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, 파트너사는 독일 기업 Martrade Holding임
- 해당 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아스트라한 주의 올라 항을 기반으로 하여 리만스키(Limansky) 지역에서 착수될 예정임
- 건설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올라 항에 8번·9번 부두 선석 배치를 진행하고, 300만 톤 이상의 처리용량을 갖춘 4개 터미널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, 2개 부두에는 화물 선적과 하역을 위한 필수 장비를 설치하고 세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
- 건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올라항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일멘 자부룬니(Ilmen Zaburunny) 지역에 항만단지 건설을 시작할 것임
- 이 항만단지는 2031년까지 총 8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, 독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최대 1,900만 톤까지 화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, 건설

프로젝트 가동으로 최소 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

■ 신항만 건설은 아스트라한 주 ‘로토스(Lotos)’ 특별경제구역 개발에 기여

-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는 북부 우회도로 건설, 지역의 도로 정비 및 교량 건설, 조선소의 선박 발주, 리만스키 지역의 사회 인프라 발전 등 아스트라한 주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
- 지난 7월 로토스 특별경제구역 측에서는 신항만 건설의 첫 단계 사업으로, 러시아 연방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 조사 계약을 체결했음

■ 카스피 해 연안지역의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에 ‘카스피 클러스터’ 조성 예정

- 로토스 특별경제구역은 카스피 해에 붙어 있는 항만경제특구이자 산업생산특구인 동시에 카스피 클러스터가 조성될 지역임
-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되면, 카스피 클러스터는 ‘북남’ 국제운송회랑을 위한 화물기지가 되는 한편, 아스트라한 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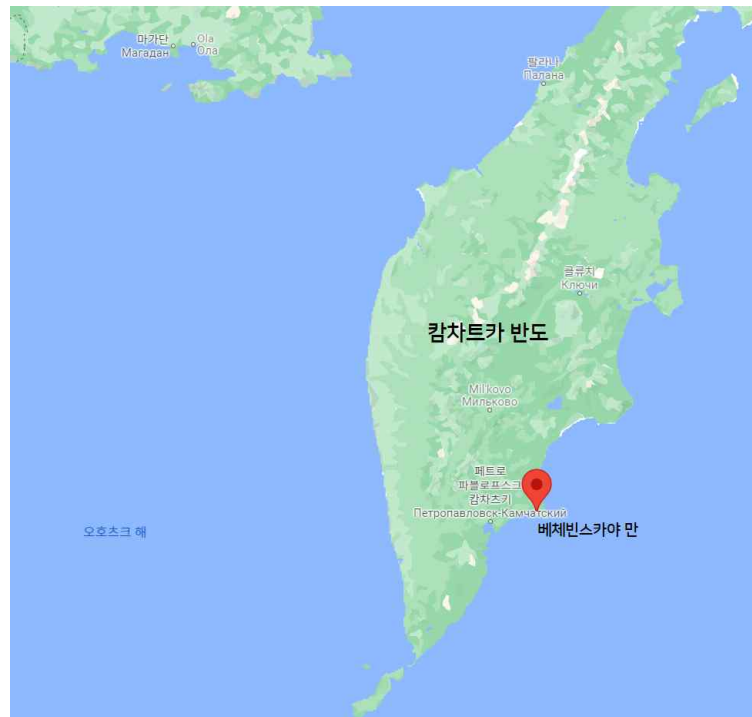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참고자료

- a)https://punkt-a.info/news/glavnoe/v-stroitelstvo-porta-v-astrahanskoy-oez-vlozhat-bolee-27-milliardov-rublej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 (2021.8.31.검색)
- b)https://ast.mk.ru/social/2021/08/30/v-portovoy-oez-zaregistirovali-yakornogo-rezidenta.html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 (2021.8.31.검색)
- c)https://arbuztoday.ru/portovaya-oez-v-astrahanskoy-oblasti-poluchila-yakornogo-rezidenta/?utm_source=yxnews&utm_medium=desktop (2021.8.31.검색)

러, 캄차카 연안에 LNG 환적단지 건설 추진

그림. 캄차카 반도 베체빈스카야 만 위치



자료: 구글 지도 검색

■ 캄차카 LNG 환적단지 건설에 사업비 195억 8,835만 루블 투입 예상

-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캄차카 천연액화가스(LNG) 환적 단지 건설사업이 조만간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(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)의 모스크바 지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될 예정임
- 이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‘2024 주요 인프라 현대화 및 확충 종합 계획’에 포함될 것이며,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“노바텍-캄차카”와 러시아 국영 항만 운영사인 “로스모르포트(Rosmorport)” 등이 거론되고 있음
- 캄차카 반도의 베체빈스카야 만(Bechevinskaya)에 건설될 LNG 해상 환적단지 프로젝트에는 210억 루블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,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음
- 이 환적 단지가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,170만 톤의 LNG를 환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유지원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jwyoo21@kmi.re.kr/051-797-4765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- a) https://www.korabel.ru/news/comments/kontrakt_na_stroitelstvo_peregruzochnogo_kompleksa_spg_na_kamchatke_budet_zaklyuchen_s_cccc.html(2021.8.10. 검색)

러시아·우즈벡, 물류 루트·인프라 개발 합의

그림. 러시아-우즈벡 로드맵 체결



자료: <https://sng.today/tashkent/18487-vlasti-uzbekistana-i-rossii-podpisali-dorozhnyu-kartu-po-razvitiju-logisticheskikh-koridorov.html>

■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는 물류루트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^{a)}

- 우즈베키스탄 투자·무역부는 최근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정부가 물류 루트를 개발하고,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
- 우즈베키스탄 투자·무역부 장관과 러시아 부총리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대외무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, 관세 및 식물위생 절차, 양국 간 수출입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

■ 8월 초에 ‘Agroexpress’ 파일럿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^{b)}

- 이 같은 양국 협력 사업의 하나로 두 나라는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까지 콜드체인을 구축해 신선한 농산물을 수입하는, 이른바 아그로 익스프레스(Agroexpress)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
-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내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CIS 국가에서 생산되는 식료품 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, 이 조치의 하나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참고자료

- a) <https://1prime.ru/world/20210823/834506738.html>(2021.8.30. 검색)
b) <https://tass.ru/ekonomika/12093497>(2021.8.30. 검색)



주요 통계



표. 2021년 7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(건화물 및 액체화물)

(단위: 백만 톤, %)

수역*	건화물	액체화물	합계	2020/2021 증감율
극동지역	13.48 (+7.2%)	5.74 (-5.1%)	19.22	+2.8%
북극해	2.91 (+1.6%)	5.57(-1.2%)	8.48	-0.4%
발트해	10.3 (+6.6%)	10.57 (-5.7%)	20.87	-0.3%
아조프-흑해	21.64 (+10.4%)	11.51(-1.2%)	22.88	+3.5%
카스피해	0.16 (-32.9%)	0.38 (-0.9%)	0.54	-14.6%
합계	36.98(+7.1%)	33.77(-3.3%)	70.55	+1.5%

* 주: 극동해역: 블라디보스톡, 자루비노, 올가, 포시에트, 나호트카, 보스토치니, 바니노, 소비에트카야가반, 데-카스트리스, 네벨스크, 홀름스크, 프리고로드노예, 마가단,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

북극해: 무르만스크, 칸달라크샤, 나리안마르, 두딘카, 아르한겔스크, 오네가, 바라데이, 페벡, 사베타

발트해: 상트페테르부르크, 프리모르스크, 브보스크, 비소츠크, 우스트-루가, 칼리닌그라드

아조프-흑해: 노보로시스크, 겔렌지크, 투압세, 타간로크, 아조프, 로스토프 나 도누, 다망, 템류크, 카프카즈

카스피해: 아스트라한, 올라, 마하치칼라

** 주: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a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6908/>(2021.8.14. 검색)

b) <https://portnews.ru/news/315455/>(2021.8.14. 검색)

표.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CIS**		합계	
		수출	수입	수출	수입	수출	수입
01-24	식료품 및 원자재	255,992.2	68,996.9	1,479.9	1,414.0	257,472.1	70,410.9
25-27	광물 제품	3,169,535.8	30,354.4	62,729.7	79,648.8	3,232,265.6	110,003.2
27	연료 및 에너지 제품	2,842,832.9	29,555.4	363.3	0.92	2,843,196.1	29,556.3
28-40	생고무 화학 제품	4,936.9	72,139.6	1,278.9	1,063.0	6,215.8	73,202.6
41-43	가죽원료모 피 제품	17.5	2,051.4	100.3	8.0	117.7	2,059.4
44-49	목재 및 펄프, 종이 제품	136,604.0	9,183.8	1,578.0	6.3	138,181.9	9,190.1
50-67	섬유·섬유제 품 및 신발	708.1	42,827.8	154.6	624.7	862.7	43,452.6
72-83	금속 및 금속 제품	53,849.9	83,143.2	1,379.7	4,372.1	55,229.6	87,515.4
84-90	기계류	24,350.1	453,538.0	6,521.2	2,728.9	30,871.3	456,266.9
68-71, 91-97	기타	385,687.6	57,114.5	77,273.6	290.3	462,961.2	57,404.8
	합계	4,031,682.1	819,349.6	152,495.9	90,156.2	4,184,178.1	909,505.8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1.8.19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1.8.19. 검색))

표. 2021년 6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

(단위: 톤, 천 달러)

EAEU 코드	품목	해외*				CIS**				합계			
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	수출		수입	
	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	톤	천 달러
0302	냉장수산물	371	469.9	-	-	-	-	-	-	370.5	469.9	-	-
0303	냉동수산물	74,588	103,218.3	-1,061	-4,916.8	27	35.7	-	-	74,614.8	103,254.0	-1,061	-4,916.8
03031	연어	7	54.6	-	-	0	0.0	-	-	6.7	54.6	-	-
030331	광어	445	2,441.4	-	-	-	-	-	-	444.6	2,441.4	-	-
030332	가자미	1,371	1,203.9	-	-	-	-	-	-	1,370.6	1,203.9	-	-
030339	기타 넙치류	2,188	1,858.1	-	-	-	-	-	-	2,188.3	1,858.1	-	-
030351	청어	7,736	5,752.3	-	-	0	0.0	-	-	7,735.6	5,752.3	-	-
030363	대구	7,665	20,157.4	-	-	-	-	-	-	7,665.3	20,157.4	-	-
0303670000	명태	29,977	34,609.2	-	-	27	35.7	-	-	30,004.1	34,644.9	-	-
0303893	농어	16	46.6	-	-	-	-	-	-	16.4	46.6	-	-
030391	알류	4,241	78,804.1	-	-	-	-	-	-	4,240.7	24,538.1	-	-
030399	지느러미, 머리,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	1,127	1,775.8	-	-	-	-	-	-	1,126.7	1,775.8	-	-
0304	생선 필레	8,944	29,952.6	-3,353	-10,084.0	26	63.0	-	-	8,969.8	30,015.6	-3,353	-10,084.0

0305	훈제 생선, 생선 가루	13	37.5	-289	-489.9	0	0.0	-	-	12.5	37.5	-289	-489.9
0306	갑각류	7,724	170,943.8	51	551.8	-	0.0	-	-	7,724.0	170,943.8	51	551.8
030614, 030633, 030693	게	6,805	161,672.7	-	-	-	0.0	-	-	6,805.2	161,672.7	-	-
0307	조개류	2,261	6,599.8	-	-	2	8.9	-	-	2,262.7	6,608.7	-	-
03072	가리비	856	2,019.9	-	-	-	-	-	-	855.9	2,019.9	-	-
03074, 03075	오징어 및 문어	1,207	3,171.8	261	277.0	2	8.9	-	-	1,209.0	3,180.7	261	277.0
0308	수생 무척추 동물*	693	2,980.4	-	-	0	0.0	-	-	692.5	2,980.4	-	-
03081	해삼	66	365.4	-	-	0	0.0	-	-	66.0	365.4	-	-
03082	성게	627	2,615.0	-	-	-	-	-	-	626.5	2,615.0	-	-

*주: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

**주: 아제르바이잔, 아르메니아, 벨라루시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몰도바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

김엄지 연구원,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·극지연구실
(umjikim@kmi.re.kr/051-797-4776)

소피아 센터원, KMI 러시아연구센터

참고자료

a) [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\(2021.8.19. 검색\)](https://dvtu.customs.gov.ru/statistic/2021-god/operativnaya-informacziya(2021.8.19. 검색))